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된 연기군

임 영 수 (연기향토박물관장)

연기에도 옛 문화가 찬란했다.

연기군(燕岐郡)에는 특별한 문화유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연기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문명을 일으킨 금강변에는 선사인들의 흔적인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금강하류인 공주 석장리 유적과 상류인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의 구석기 시대 영향을 받아 연기에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많이 있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 강변에는 오늘날

에도 옥토가 조성되어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웅진백제를 지키려고 고구려, 신라와의 국경을 담당했던곳이 연기요, 그러기에 연기군 산 정상에는 산성이 이십 여개나 쌓여 있었고 나라를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충신 또한 많은 곳이기에 충(忠)·효(孝)·열(烈)·정려(旌閭)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곳이다.

백제 멸망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는 부흥운동은 이들 산성에서 깃발을 날렸지만 결국 성이 무너질 때 백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 비암사(碑岩寺)이다. 비암사는



비암사



비암사 삼층석탑

처음에 『뱀절』이라 불리어왔다. 이는 『비암』이 충청도에서는 『뱀』을 지칭하기 때문이며 이곳에 전해오는 전설 또한 뱀과 연관이 되어 전해온다. 먼옛날 비구니만이 살고 있는 비암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비구니스님은 밤에만 매일 나타나는 남자에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관심을 보여 이제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남자가 물을 달라는 부탁에 기회라고 생각한 스님은 남자에게 질문을 했지만 남자는 빙그레 웃을뿐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는다. 궁금증을 못이긴 스님은 몰래 남자를 따라가 확인하기로하고 다음날 아침 숨어서 뒤따라가자 남자는 비암사 뒤편산으로 올라 산 정상에 있는 커다란 바

위 밑에 뚫려 있는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들어가 확인하니 굴속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구렁이 말로는 사람이 되고싶어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비암사 삼층탑을 백일동안 도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체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99일을 돌고 하루를 남겨놓고 스님에게 들리게 되었으니 구렁이는 사람으로 환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자신의 욕심이 구렁이를 사람으로 환생을 못시킨 책임을 느껴 비암사를 떠나 굴속에서 구렁이와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비암사의 원뜻은 그것이지 아니다. 1959년 비암사 산 너머 쌍류리에 사는 동국대학교 사학과 이재옥 학생이 과제물로 비암사 삼층석탑위에 올려져 있는 불상을 탁본떠서 제출하면서 비암사의 수수께끼가 벗겨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불상의 모습이 마치 비석(碑)처럼 생겨서 이 불상을 비상(碑像)이라 부르게 되었고 비암사(碑岩寺)는 이런 불상을 모신 절이기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즉, 비석처럼 생긴 불상을 모신 절이란 뜻이다. 3점의 석불비상(石佛碑像)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곳 불상에는 많은 명문이 쓰여 있는데 제작된 연도인 계유(癸酉-673)년과 주동자인 전씨(全氏)와 사찰 창건주인 해명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건 목적이 백제왕과 대신의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비상(碑像)을 만들었고 매년 4월 15일 제를 지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비암사에서 백제대제를 지내게 되었고 비암사는 백제멸망후 백제유민들이 세운 백제의 마지막 사찰이며 백제왕에게 제사를 지낸 중요 사찰임을 알게된 것이다.



백제대제



백제대제 (행렬이동)

그뿐인가 고려시대 수차례의 몽고 침략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고 1292년 합단의 무리가 연기 정좌산(正左山)까지 쳐들어 왔을 때 고려의 한희유, 김흔장군이 선봉이 되어 물리치니 이것을 연기대첩(燕岐大捷)이라 한다. 당시의 국난은 임금이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공주를 지나 전라도까지 합단무리가 쳐들어가면 고려가 위태로운 상황이

었으니 연기에서의 격파는 나라를 구한 대첩이었다. 세종이 안질(눈병)에 걸려 정사를 돌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약과 처방을 하였지만 낫지 않았고 급기야 약수치료를 선택하여 처음에는 청원의 초정약수에 행궁을 짓고 치료했지만 낫지않자 전의초수(全義椒水)를 궁궐로 떠 올리게하여 1년만에 완치를 본 신기한 우물이 전의 관정리에 있다. 그동안 청원군에서는 초정약수가 세종의 안질을 고쳤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치료하다 효과를 보지못하고 전의 초수로

완쾌를 본 것이다. 다행이 이 우물이 오늘날까지 잘 보전되어 이곳에서 왕의 물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세종이 성군으로 우리 역사의 가장 자랑거리인 한글을 창제하기까지는 연기군에 있는 전의 초수가 눈병을 치료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극(세종대왕안질치료장면)



왕의물 인전의 초수





효교비각과 효교정

연기에는 사람이 있었다.

왕건은 견훤군을 정벌하기 위하여 금강에 도착하자 장마로 인하여 물이 불어 건널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이치(李齒)가 나타나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네주자 왕건은 이치에게 공신의 상을 내린다. 또 노를 저어 건네 주었다하여 도(棹)자를 내리니 그가 바로 전의 이씨 시조인 이도(李棹)이다. 태사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이라는 관직을 받은 이도는 전의 이성산성에 살면서 전의를 다스렸다. 그의 후손들은 전의를 관향으로 살아가면서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천, 이훈, 이익, 이정간 등이다.

세종때의 인물 이정간(李貞幹)은 어머니가 102세이었을 때 그의 나이 80세의 고령이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어리광을 부려 부모를 즐겁게 해 주었으며 세종으로부터

괘장(几杖)을 하사 받았다.

연기에는 충절을 지키는 고집있는 역사 인물 또한 많다. 조선이 개국되자 고려유신임을 내세운 충신들은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모든 관직을 버리고 연기에 들어와 은거한 이가 많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안임씨 임난수(林蘭秀), 안동김씨 김휴(金休) 기계유씨 유선(俞善) 강릉김씨 김승로(金承露)이다. 임난수는 금강변 삼기(三岐)에 터를 잡고 전월산에 올라 고려 왕조를 향하여 절을 올린곳을 부왕봉(父王峰), 상려암(想麗岩)이라 했으며 그가 죽자 세종은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에 신숙주 아버지 신개에게 임씨가묘(林氏家廟)라는 선액을 내리게 하였고 학당 김휴(學堂 金休)는 운주산 아래에 은거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으니 그 곳 마을이 그의 호를 따서 학당이라 부른다.



효교비

충절의 대명사로 연산군때 김처선(金處善)을 이야기한다. 그는 세종에서 연산군까지 여섯 임금을 모셨던 내시(환관)였다. 왕을 모시면서 왕이 올바른 정치를 펴도록 직간을 자주 하였으며 그에 비례하여 귀양살이 또한 많이 하였다.

우리 역사상 가장 포악하기로 소문난 연산군때 포악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연산군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궁녀를 욕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아무도 이러한 행동에 언급이 없었으며 무어라 말을 꺼내면 그것은 곧 죽음이었기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때 이러시면

아니된다는 소리가 들려 왔으니 김처선의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이었다. 연산군은 대노하여 활을 쏘고 다리를 자르고 호랑이에게 물어 죽이도록 하였으나 호랑이가 오히려 도망가자 그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죽였고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자 양자인 이양직과 가족 모두를 참살하였으며 김처선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모든 문서에 김처선(金處善) 이름 글자가 들어가면 엄벌하였으며 김처선의 집을 모두 파서 연못으로 만들고 그의 고향이 전의(全義)라하여 전의를 없애버렸다.

1506년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이 폐위되자 이구동성으로 진정한 충신은 김처선이라 하였다.

훗날 전의에는 충신 김처선의 충신문이 건립되었으나 세월속에서 정문은 사라지고 그의 정신만이 전하고 있다.

이 시대 진정한 역사인물은 누구인가.

연기를 빛낸 인물들은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기에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다.

연기에는 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다.



세갈래길 연기

연기군(燕岐郡)을 구성하는 지역은 북쪽이 전의, 가운데가 연기, 남쪽이 금남지역이다. 북쪽 전의(全義)는 현재의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이 이에 속하며 백제때는 구지현(仇知縣) 통일신라시대에 금지현(金池縣) 고려시대에 전의현(全義縣)으로 되었다. 연기(燕岐)는 지금의 남면, 서면, 동면지역으로 백제때 두인지현(豆仍只縣) 통일신라시대 연기현(燕岐縣)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들 두현은 조선 태종(1414년)때 두 현을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라 하였는데 2년뒤에 다시 분리하였다. 한편 금남은 백제때 도성이었던 웅천(熊川), 웅진(熊津), 웅주(熊州), 공주(公州)에 직속되어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다 1914년 일제에 의하여 행정개편 당시 연기군에 편입되어 연기군의 남쪽 금강 건너에 있다 하여 금남면(錦南面)이라 불리게 되었다.

1914년 행정개편시 현 남면 연기리에 있는 연기를 중심 도시로 하여 연기군(燕岐郡)이라 칭하였고 처음에는 연기리에 연기군청이 있었으나 조치원이 신설되어 경부선 가설로 인하여 중심도시로 변모하자 이곳으로 행정이 옮겨갔다.

금강변을 세거리라 하였다. 남수문은 독락정기에서 이곳은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가 만나는 곳이기에 삼기(三岐)라 불렀다 했으니 이는 연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임을 입증하는 말이다. 과거 한양에 가기 위해서는 충청도, 전

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다. 사방각처(四方各處)에서 사람이 오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아홉거리가 있다. 이는 구거리라하여 아홉갈래의 길이니 이곳은 매일 장이 섰으며 전설에 의하면 이곳의 길이 변화하여 시집가는 가마가 이곳에서 바뀌어 처녀는 엉뚱한 곳으로 시집가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의 명성에 맞게 국도 1호가 연기군을 가로지르고 1904년에 개통된 경부선 철도가 또 충북선이 조치원을 경유하고 경부, 중부의 고속도로가 연기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가장 빠른 고속 철도가 연기를 통과하지 않는가.

이들은 연기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옮겨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중에 하나이다.



고북저수지 연기대첩공원





윤주산성

연기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는 연기는 꿈에 부풀어 있다.

삶의 질이 최우선이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시설확충으로 최고의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이는 이 고장에 살고싶은 새로운 모습의 정주기반 조성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촌, 도시기반 구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시켜야 한다. 21세기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2004년 연기군은 361.53㎢ 면적에 83,063명의 인구에 1읍7개면, 207개리, 1,018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예산이 총 1,604억원으로 자립도가 24.8% 충남 도내 5위이다. 비록 작은 군이지만 작으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곳이다. 연기군의 모양이 고구마처럼 길고 생활권이 주변 큰 도시에 흡수되었다고 한다. 소정면 전의면

은 천안에 조치원 동면은 청주에 남면 서면은 공주에 금남면은 대전에 생활권을 두고 이들 도시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들 도시에서 소비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들 큰 도시가 연기로 몰려올 것이다. 청정지역 연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살맛 나는 곳이기예 이들은 연기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겨 연기가 진정 길지 임을 알 것이다.



운주산백제의얼상징탑

연기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다.

연기군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 유력한 후보지가 공주의 장기와 청원군의 오송이 지목되면서 그 가운데 위치한 연기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기 북쪽 청원군의 오송은 예로부터 궁평(宮平)이라 불리었다. 이는 "궁뜰"이라하여 미래 이곳에 궁(宮)이 들어선다는 예견이 있는 곳이다.

또 연기 서쪽 공주의 대교(大橋)는 과거 박정희대통령때부터 행정수도 후보지로 관심을 보였던 곳으로 대교(大橋)는 즉 "한다리"이다. 이는 높고, 크고, 넓은 의미로 한양(漢陽)과 같은 뜻으로 풀이되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연기는 행정수도가 어느 곳으로 오든 영향권 안에 들어서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연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먼 선사시대 인류가 출현하여 터전을 잡고 문명을 일으킨 곳이 바로 강가이다. 이는 나일강변의 고대 이집트문명, 인더스강 연안의 인도문명, 황하를 끼고 일어난 고대 중국 문명이 그렇고 한반도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고조선 문화와 고구려 문화가, 한강변에서는 선사문화와 조선시대 문화, 연기를 가로지르는 금강에서는 선사문화와 삼국의 백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의 문명과 문화는 강변에서 형성되었으며 백제가 웅진에 천도하였을 때의 연기는 수도권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때 걸린시간이 500여년이다. 조선 50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행정수도가 다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으니 역사의 사명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이제 연기는 잊혀진 작은 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